

# 문학과 책과 자본주의

김성동

소설가

“무릇 천지의 정기를 얻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 사람이요, 그렇게 태어나게 된 사람의 몸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이 몸 밖으로 퍼나온 것이 말이요, 그 말 가운데서 가장 알차고 맑은 것이 시(詩)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면 시가 바르고 마음이 간사하면 시 또한 간사해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로 된다.”

시를 보는 옛사람의 마음이다. 한마디로 알차고 맑고 올바라서 아름다운 그 무엇을 가리켜 시라고 불렀던 것이다. 시와 소설을 필두로 한 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들이 많지만, 시 또는 문학을 보는 옛사람의 이와같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라고 믿는다. 글은 곧 사람이요, 사람이 또한 곧 글인 까닭에서다.

어찌 또 문학만이겠는가. 문학을 필두로 한 모든 책과 그 책을 꾸며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또한 다 마찬가지였으니, 정신이다. 알차고 맑고 올바라서 아름다운 그 무엇, 곧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릇이므로 세상에서도 제일로 숭고한 그 무엇이 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거기반의 사람들이 배고팠던 시절, 책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다. 정신의 양식이 있음으로 해서 육신의 공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환장하는(환경문제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득 창궐하는 세상이다. 몇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온하게 여기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저마다 환경전문가요 환경운동가이다. 환경전문 잡지들이 쏟아져나오고, 이른바 정치인 또는 정치지방생들까지도 저마다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문제는 그러나 그렇게 앞장서서 외쳐대는 사람들이 뿌려대는 갖은 홍보물이며 잡지같은 매체들이 환경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저마다 값 나가는 극상품의 종이에 충전연색 화보로 뒤발을 해놓으니, 그렇지 않아도 더럽혀져 임종 직전에 이른 이 생태계를 더욱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문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천연색 화보없이 재생용지만을 쓰고 있는 환경관련 잡지는 《녹색평론》 한가지밖에 없다.

무릇 모든 ‘운동’ 또는 정치행위의 일차적 자격 조건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도덕적 순결성에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순결하지 못한 도덕성을 꾸짖을 수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 아니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살고 있다. 약육강식하고 우승열패해서 적자생존하는 비정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먹는 것이 자본주의이므로 문학책과 환경관련 서적들을 포함한 모든 책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자본주의의 충실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무엇이고 책은 과연 무엇인 것인지? 8장의 이 원고를 쓰기 위하여 나는 또 몇 그루의 나무를 없이하는 업을 짓고 있는 것인지?

표지 인물 2 **우리 들꽃에 바쳐온 질긴 사랑**  
《한국의 자원식물》 펴낸 우리꽃연구가 김태정씨

특집/지구환경과 책 4 **자연사랑을 책에서 배운다**  
권택영 / 김명자 / 김영도 / 도상목 / 법륜  
서왕진 / 염성순 / 이나미 / 이희재

8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구승희  
에코 아나키즘의 이론과 사상배경

10 **학문의 경계 넘나드는 환경이론들**  
김명식 / 신의순 / 허남오

12 **지구를 지키는 녹색잡지 만발**—김종우

13 **질높은 환경서 출간하는 ‘뜨님’**

특별 기고 14 **시각장애자에겐 너무나 가혹한 책**—조근태  
시각의존의 정보형태가 대부분... 출판에 배려 있어야

저자 초대석 16 **《세계문학사의 허실》** 펴낸 조동일 교수  
17 **《논어·맹자와 행정학》** 펴낸 이문영 교수

출판 진단 18 **인터넷, 따라하면 쓸 수 있나**—박현정

서점가 진단 19 **불황터널의 끝이 보인다**—위성계

해외신간 리뷰 20 **생명탄생의 장구한 역사**—김동광  
크리스티안 데 듀브의 《생명의 먼지》

재미있는 기획산책 21 **책에서 풍기는 신선한 꽃향기**—장익순

책과 영상 22 **인류가 저지른 인종차별의 죄악**

출판계 소식 23 **도서관 주간 맞아 행사 다채·외**

컬러 화보 24 **옛 향기 그윽한 세계 고전적이 한자리에**  
제3회 서울국제고서박람회

서평 26 **원유한 《홍이섭의 삶과 역사학》**—김기승

**바살라 《기술의 진화》**—김환석

27 **데리다 《그라마톨로지》**—김종갑

**애킨스 《원소의 왕국》**—정규성

이 책 그 사람 30 **《토박이 곤충에 관한 37가지 이야기》** 펴낸 김정환씨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펴낸 김영진씨

31 **《한 시골뜨기가 눈떠가는 이야기》** 펴낸 이만열 교수

새책 흐름 32 **시간과 공간을 읽는 네가지 시각·외** / 문학·예술

34 **조선족의 뿌리를 찾아서·외** / 어린이

36 **새책 속으로**

40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이중환